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알림**

1. 말씀 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5월호가 나왔습니다. 남플 도서관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2. GMC 교단 류계환 총 감리사 방문  
\* 일시 : 4월 23일(목) - 24(금)

**• 선교적 교회 컨퍼런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

날짜 : 4월 24일(금) ~ 26일(주일)

장소 : 남부 플로리다 감리교회

강사 : 호성기 목사 PGM(People for Global Mission) 국제대표

**• 건강한 관계를 위한 "관계 성장" 세미나**

- 1) 일시 : 4월 29일(수) 오전 10시
- 2) 장소 : 초등부실
- 3) 강사 : 윤은주 집사 (생명의 전화 강사)
- 4) 참석대상 : 모든 성도
- 5) 주관/문의 : 어머니 기도회 (권준희 사모)

**• 5월 가정의 달 [영화 「신의 악단」 상영 안내]**

- 1) 일시 : 5월 9일(토) 오후 7시 / 5월 10일(주일) 오후 6시 (2회 상영)
- 2) 관람료 : \$7 (현금, 전액 배급사 전달) \* 15세 이상 관람가
- 3) 관람신청 : 교회 로비 또는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주소> <https://forms.gle/XTg6tkoibkqVm3Uw7>
- 4) 주관/문의 : 가정사역팀 (홍석주 집사)

**교육부 소식**

**• 유아 유치부 초등부 소식**

1. 유아 유치부 큐티학교 오픈! 유튜브 "남플유아유치부" 채널에서 '예수님 이랑 나랑' 큐티가 매일 진행됩니다.

**• Y.E.M. (Youth, English, Multicultural)**

1. Sunday Service @ 10:30 am



# 선교적 교회 컨퍼런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

4월 24일(금) - 26일(주일)



호성기 목사  
PGM 국제대표  
(People for Global Mission)

- 4월 24일(금) 오후 7:30 선교적인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진다
- 4월 25일(토) 오전 6:00 선교적인 교회는 기도로 부흥한다
- 4월 25일(토) 오후 7:30 선교적인 교회는 말씀 위에 굳건히 선다
- 4월 26일(주일) 오전 8:00, 10:30 선교적인 교회는 사명으로 산다

남부플로리다 감리교회

**지난주 헌금 통계**

<b>일반헌금 \$16,246.00</b>	심일조: \$9,643.00 부활절. 일반감사: \$1,200.00 주 일: \$2,020.00 기 타: \$3,383.00
<b>지정헌금 \$870.00</b>	목장선교: \$370.00 개인선교: \$500.00

**\*\* 온라인 헌금/우편 송금 내역은 다음주 통계에 반영됩니다.**



**2026년도 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습3:17)

**남플 G.P.S**

God's Word  
Prayer  
Service

**담임목사**

권태홍  
Rev. TaeHong  
Kwon

6501 W. Commercial Blvd. Tamarac, FL 33319  
교회(954)597-0735  
mcosf.org

남부 플로리다  
South Florida

# 감리교회

Global Methodist Church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엡5:19)

**P. the Poor in Spirit**  
**O. Oneness in Lord's Hand**  
**E. Encouragement in Christ**  
**M. Mission-oriented Life**

남부 플로리다 교회는 아름다운 시(P.O.E.M)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입니다.

## < 부활절 셋째주일 > 예배순서

1부(8:00am)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 ▲ 송영 Doxology / 살아계신 성령님
- ▲ 참회기도 Prayer of Repentance
- ▲ 사죄의선포 / 인도자
-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찬송 Hymn / 250장(통182)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기도 Prayer / 윤경순 권사

찬양 Choir / 호산나 찬양대  
내 평생에 가는 길

교회소식 Announcement ..... 영상광고

- ▲ 봉헌 및 봉헌기도 Offering ..... 다같이
- ▲ 성경봉독 Scripture ....삼하(2 Sam) 11:1-4..... 다같이
- 설교 Sermon ..... 권태홍 목사

## < 당신이 그 사람이라 > You are the man

▲ 파송찬송 Closing Hymn/ **충 만**

▲ 축도 Benediction ..... 권태홍 목사

▲ 표에는 일어섭니다.

2부(10:30am)

인도자 Presider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사도신경

▲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

내영이 주를,  
감사함으로,  
그 사랑,  
주의 손이.

기도 Prayer / 유영재 장로

찬양 Choir / 할렐루야 찬양대  
내 평생에 가는 길

### 2026년 4월 예배를 섬기는 분들

	예배 안내	헌금/안내	성경 봉독	대표기도	찬양봉사
오늘 4월 19일	1부	Unity	담당자	윤경순권사	사랑나눔 목장
	2부			유영재장로	
다음주 4월 26일	1부	Unity	담당자	박인숙장로	Unity목장
	2부			김예숙권사	

## 설교요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윗의 사건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삶  
을 깊이 돌아보게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내면과 신앙  
의 현실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욕  
망에 이끌려 죄를 범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죽이  
기까지 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앙의 본이  
되었던 다윗이 한순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게 되면서, 그의 삶은  
점점 더 깊은 죄의 흐름 속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향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다윗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삶의 중심에  
서 실제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시편을 통해 하나님을 찬  
양하고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말씀이 욕망  
과 유혹 앞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것 사이의 분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  
의 뜻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움직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의지하기보다 필요할 때만 찾는 태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나단은  
비유를 통해 다윗의 죄를 드러내고, 다윗이 스스로 분노하며 정의를 말할  
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는 선언으로 그의 실상을 직면하게 합니다. 하  
나님은 다윗의 죄를 외면하지 않으셨지만, 동시에 그를 버리지도 않으셨습  
니다. 오히려 그를 정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회복으로 부르시기 위해 찾  
아오신 것입니다.

다윗이 죄에 빠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여호와와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나 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욕망과 판단을 앞세운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필요할  
때만 선택적으로 적용하거나, 자신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려는 경향이 있습  
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삶  
의 기준과 방향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결국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  
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며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  
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다윗 역시 한순간 시선을 하나님  
에게서 다른 곳으로 돌렸을 때 무너졌고, 이후 점점 더 깊은 죄의 길로 들  
어서게 되었습니다. →

## <설교 요약>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태에서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단을  
통해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그 죄를 드러내심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  
오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앞에서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  
하며 회개로 나아갑니다.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완벽해  
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  
기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 우  
리에게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며,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은 더 이  
상 정죄의 선언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의 초대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무너졌느냐가 아니라, 그 자리에  
서 누구를 바라보느냐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고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울 때, 우리의 삶은 다시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은혜 가운데로 부  
르시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 앞에 다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 ■ < 나눔 질문 >

- 1) 요즘 내 삶의 “시선”은 어디에 가장 많이 머물러 있나요?
- 2)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잘 적용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말씀이 “작동되지 않았던 순간”)
- 3) 다윗처럼 한 순간의 선택이 큰 결과로 이어졌던 것처럼, 내가 조심  
해야 할 “영적 빈틈”은 무엇인가요?  
(피곤함, 감정, 비교, 유혹, 습관 등)
- 4)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는 나단의 말이 오늘 내게 적용된다면,  
하나님이 다루기 원하시는 영역은 무엇일까요?  
(회개, 관계 회복, 태도 변화 등)
- 5)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 금주 애찬 섬김

	금주 (4월 19일)		다음주 (4월 26일)
	간성수, 간혜옥집사		Jorge, 김지현집사
	범사감사		범사감사
	사랑나눔목장		Unity목장